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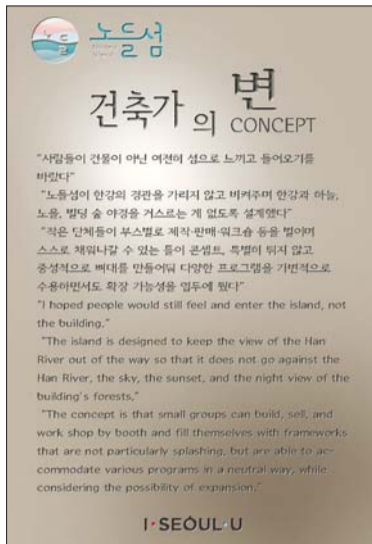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시민들에게 알린다

노들섬 등 의도공유 부족 ‘시각차’ 디자인 컨셉, 사업 추진배경 등 준공표지판에 市 정책내용 삽입

서울시가 공공건축물의 설계개념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한 건축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머릿돌(준공표지판)에 건축가의 설계의도를 새겨 건물의 디자인 컨셉 및 사업 추진 배경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시는 노들섬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 공유부족으로 시각차가 발생했다고 보고 준공표지판에 설계개념 내용을 포함시켜 서울시의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로7017과 한강보행교는 ‘보행자 중심 도시 서울’을, 2022년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로봇과학관은 ‘동북권 신경제 중심 구축’을, 을하반기 착공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안내판 설치 예시, 공공건축물 머릿돌(준공표지판) 설치 예시.



/서울시

연희·중산 공공주택은 ‘리인벤터 서울’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머릿돌에 이 같은 설계의도를 적어 넣을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의 정확한 설계의도 전파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건축물 머릿돌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하

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완공 후 공사의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판(석재 또는 금속)을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서울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는 설치·건립 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머릿돌이 방문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에 눈에 띄지 않은 형태로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준공표지판은 서울 시청의 경우 지장물에 가려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 위치에 있고, 장안평 자동차산업 센터는 건축물 후면 재활용쓰레기장에, 서울새활용프라자에는 화단, 난

간에 가려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했다.

시는 현행 규정이 준공표지판에 기본적인 정보만 표기토록 하고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2019~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당선자 등 현업 건축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설계의도 전달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공모 당선자들은 “설계자의 계획의도를 간단하게나마 이해한 상황에서 건축의 경험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건축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다만 설치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설계자의 자율이 일정 부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공공건축물 준공 후 머릿돌 등에 설계 컨셉 내용을 삽입해 디자인 개념과 추진배경을 후대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디지털 시민시장실’ 세계 언택트소통 주도

서울시, 美 LA 등 주요시장, 기업인과 화상회의·세미나 등 20회 이상 실시 시내 2800대 CCTV영상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통해 미국 LA 등 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콜롬비아 부통령, 글로벌 기업 CEO 등과 화상회의 및 세미나를 20차례 이상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3200만건의 행정 빅데이터와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다. 시는 세계 도시들이 요청한 서울시의 K방역과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스마트행정 핵심도구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만 있으면 쌍방향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 27일 C40 회원도시이자 3억6000만명의 도시인구를 대표하는 31개국 45개 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공동대응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4월 17일에는 LA·샌프란시스코·시드니 등 주요도시 시장,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와 화상세미나를 했



지난해 4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미국 글로벌 IT기업 시스코(CISCO) 척 로빈스 회장에게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서울시

다. 이 자리에는 포르쉐, 보쉬, 딜로이트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또 마르파루시·아미레스·콜롬비아 부통령, 코스타스 바코야니 아테네 시장, 에크렘 이마모글루 이스탄불 시장, 피루즈 하나치 테헤란 시장 등과도 개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여기저기 분산된 데이터를 총망라해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시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요의 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는 2017년 약 1000만건에서 현재

3200만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시내 2800여대 CCTV 영상정보도 시장실에서 터치 한 번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등 250여개 도시와 중앙정부 부처에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를 방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집약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자정부 시스템이자 글로벌 소통채널”이라며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시민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도시간 연결망을 촘촘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장애인 38만명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

서울시, 1인당 5매씩 우편발송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흥대 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5846명이다. 1인당 5매씩 약 200만장의 마스크가 배부된다. 마스크는 5월 1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른 무더위로 텐탈마스크 수요가 급증, 해외수입을 통해 확보한 텐탈마스크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입마스크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분진포집효율(입자 차단 성능)이 KF기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방역물품 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확보해 의료기관과 임신부, 이동노동자, 어린이집, 요양시설,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번 마스크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을 방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감염위험 직업군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50곳 모집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9월 개관

서울시는 올해 9월 개관하는 ‘스페이스 살림’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페이스 살림은 주한미군 기지 ‘캠프 그레이’가 있던 서울 동작구 대방동터에 들어선다. 시설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만7957㎡ 규모이며, 수도권 전철 1호선 대방역과 지하연결통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사무공간, 촬영·녹음을 위한 콘텐츠 제작공간, 교육공간(컨퍼런스홀), 스타트업 쇼룸과 판매공간 등이 만들어진다. 뽐맘음 스튜디오, 마을서재, 공유주방,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영유아 시간제 돌봄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살림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개관에 앞서 3차에 걸쳐 약 50개 입주기업을 모집키로 했다. 1차로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000만원 이상의 투자나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성장형 여성기업 10여개를 모집한다.

/김현정 기자

강변북로 등 7곳 교통관리시스템 세척

서울시설공단, 도로 부분통제

서울시설공단은 도로 전광판과 영상 장비와 같은 교통관리시스템을 세척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등 7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일부 구간을 9월 말까지 부분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세척작업을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이다. 부분통제는 18일 시작된다. 세척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부 구간에서 1~2개 차로 부분통제가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세척 모습. /서울시설공단